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녀중학생의 SNS중독경향성 및 스마트폰 게임중독 간의 관계: 외로움의 조절효과

고민정, 하정희*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SNS Addiction Tendency, Smartphone Game Addiction by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s of Loneliness

Min-Jung Ko, Jung-Hee Ha*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Han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남녀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 SNS중독경향성, 스마트폰 게임중독 간 관계를 살펴보고, 남녀중학생의 외로움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SNS중독경향성 및 스마트폰 게임중독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A지역 중학교의 남녀청소년 259명을 대상으로(남학생 134명, 여학생 125명)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외로움과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남학생의 경우 외로움과 SNS중독경향성이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 여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스마트폰 게임중독의 관계에서 여학생의 경우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스마트폰 게임중독이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 남학생의 경우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스마트폰 게임중독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외로움의 수준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SNS중독경향성과의 관계가 남녀중학생 모두 유의하게 달라지지 않았다. 셋째, 외로움의 수준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녀중학생의 스마트폰 게임중독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자 중학생에게만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에 대한 한계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or not loneliness a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SNS addiction tendency as well as smartphone game addiction in male and female middle-school students. The subjects were 259 male and female adolescents enrolled in A region Province (134 male and 125 female stud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SNS poisoning tendenc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loneliness and SNS poisoning tendency in males, whereas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in females.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smartphone game addic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sychological control by parents and smartphone game addiction in female students, whereas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in males.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and SNS addiction depending on the level of loneliness did not significantly change between both male and female middle-school students.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smartphone game addiction in male and female middle-school students according to degree of loneliness, only male students showed a moderating effect.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discussed.

Keywords :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SNS Addiction Tendency, Smartphone Game Addiction, Loneliness,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

본 논문은 고민정(2019)의 석사학위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Jung-hee Ha(Hanyang Univ.)

email: hajung366@hanmail.net

Received February 24, 2020

Revised March 24, 2020

Accepted April 3, 2020

Published April 30, 2020

1. 서론

오늘날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필수품으로 자리 잡아 편리함과 즐거움을 주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화나 문자, 의사소통, 게임, 쇼핑, 금융거래 등을 이용할 수 있어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1]. 이로써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새로운 미디어 기기에 대해 빠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기존의 매체를 대체하려는 경향이 있다[2]. 더구나 스마트폰은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학교 적응, 학업 스트레스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고, 그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자극이 제공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3].

[4]의 자료에 따르면 10~20대의 청소년들은 '커뮤니케이션', '여가활동', '자료조사' 등의 이유로 인터넷을 이용하며,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군에 속하는 10~19세 청소년들은 주로 '메신저'와 '게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SNS를 77%정도 이용한다고 밝혀져 있다. 또한 2018 게임이용자 실태조사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서비스로 자료 및 정보습득은 86.6%, 커뮤니케이션 96.4%, 여가활동 97.9%, 경제활동 67.1%로 커뮤니케이션에는 메신저, SNS의 사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가활동에는 게임, 동영상 등의 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용도에 있어 게임이나 SNS의 비중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비롯하여 미디어 매체 사용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청소년들의 중독문제가 성인보다 심각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도 10대가 가장 높은 중독률을 나타내었다[5]. 또한 청소년은 아직 성장하고 발달하는 미숙한 단계로서, 자아가 온전히 확립된 상태가 아니므로 어느 연령 때보다도 스마트폰의 역기능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6].

실제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보추구동기가 높을수록 중독의 정도는 낮아지는 반면, 상호작용이나 게임에 대한 동기가 높은 경우 중독의 정도가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2,7]. 이러한 결과는 또래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이 목적이거나 오락이 목적일 경우 중독에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을 인터넷 중독의 확장된 개념으로 본다면, 스마트폰의 사용동기에 따라 인터넷 검색, 어플리케이션 사용, SNS사용, 게임사용 등과 같은 영역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

에 있어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SNS라는 콘텐츠와 오락적 목적을 해소시키는데 적합한 모바일 게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SNS 및 게임의 사용이 스마트폰 중독의 주요 예측 변인임을 밝힌 바가 있다[8]. 그러나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연구만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매체로 한 SNS사용과 게임사용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는 연구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에 있어서 주된 예측변인으로 밝혀진 SNS중독과 스마트폰 게임중독을 상정하여 이들에 영향 미치는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SNS중독은 최근 떠오른 사회문제로 명확한 개념이나 진단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다[9]. 이에 국내에서는 온라인상의 대인관계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금단과 내성을 경험하고 일상에 지장이 있는 것을 일컫는 개념으로 'SNS 중독경향성'이란 용어[10]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즉, SNS의 사용은 대인관계의 확장, 소통의 기회로 친밀감, 유대감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1].

이와는 달리 스마트폰 게임중독은 스마트폰 기기의 특성을 따로 가지고 있어 차별적 정의를 가지고 있다. 게임 상에서 만난 관계가 실제 대인관계를 대신하는 인터넷 게임중독과 달리, 스마트폰 게임중독은 가상세계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다[12,13]. 즉, 게임을 통하여 온, 오프라인 인맥을 형성, 유지하는데[13] 이로 인한 문제 행동 등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다. 청소년들은 가상의 공간을 통해 발달적 과업으로 인한 불안정감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며, 친밀감과 소속감을 경험한다. 또한 가족과 함께 지만 게임을 통하여 가상으로 모험심을 충족시키며, 청소년기 겪을 수 있는 부정적 감정을 발산하는데 이용한다[14]. 이러한 청소년들의 특성으로 인하여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될 수 있고, 오히려 발달과업의 성취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15]

하지만 모든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이르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환경적, 심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유발된다. 주로 이용자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충동성, 자기효능감 등에 대한 개인 심리적 요인이나 부모양육태도,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등과 같은 요인들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띄게 된다[16,17]. 특히 청소년들은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증가 하는 시기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 문제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18].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문제행동이나 인터넷 중독 수준과 게임몰입 정도가 높으며

[19,20,21], 부정적 양육태도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상의 공간에서 심리적 만족감, 안정, 정서적 지지를 충족하며 중독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22,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으로 알려진 부모요인에 관심을 두고 이들 가운데 하나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상정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에 대한 애정을 기반으로 한 양육방식이기는 하지만 자녀와의 애착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정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애정을 철회하려는 행동 또는 죄의식을 느끼도록 하여 자녀의 사고, 행동, 감정, 자기표현 등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부분을 통제함으로써 자녀의 정서적, 심리적 자율성을 압박하고 통제할 수 있다[24] 이러한 통제는 자녀가 자율성을 기르는데 저해되며 독립적으로 발달하는 것을 방해한다[25].

청소년기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에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데,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문제 행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져 있으며[26], 아동의 내현적, 외현적 문제와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19,27].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자녀가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문제행동이나 스마트폰중독 수준이 높아지며 [28,29,21], 가상의 공간을 도피처로 사용하게 되면서 심리적 만족감, 안정, 정서적 지지를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3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SNS중독경향성 간 정적상관이 있고, 부모 심리적 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SNS중독경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또 부모가 심리적 통제를 높게 사용할수록 컴퓨터 몰입정도가 높으며[20]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인터넷 게임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31]. 이러한 관련성을 전제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SNS중독경향성 및 스마트폰 게임중독 간에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한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SNS 중독경향성 및 스마트폰 게임중독과의 관련성을 전제로 할 때 이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함께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최근 개인 내적 변인 중 하나인 외로움 또한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하여 중요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외로움이란 개인의 사회적 관계가 어떤 면에서 충족되지 않음을 지각하는 내적 상태로[32] '한 개인의 사회적 관계의 망이 양적이나 질적으로 부족할 때 발생하며, 객관적으로 사회에서 격리되는 것과는 다른 주관적 감정'이라고 정의한다[33]. 이는 친밀한 관계와의 애착 부족과 개인에게

의미 있는 우정의 결핍으로 생기는 일반적인 형태라고 설명되어진다[34].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일수록 슬관, 사고, 휴식, 도피 등의 목적으로 어떤 것에도 중독이 된다고 보는데[35,36] 최근 외로움과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이 가운데 외로움이 휴대전화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37]의 연구에서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관계의 질이 자신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해 불유쾌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 휴대전화에 중독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외로움은 SNS와 게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오윤경[38]의 연구에서는 외로움과 낮은 대인관계 만족도가 SNS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원진, 박웅기[39, 40]의 연구에서도 외로움은 SNS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스마트폰 게임 관련한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클수록 스마트폰 게임중독이 될 가능성이 SNS 집단보다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39]. 또한 아동의 소외와 외로움이 높을수록 게임중독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연구[42]결과가 있으며, 게임중독과 외로움이 정적 상관을 보인 연구들이 있다[43, 44]. 반면에, 외로움이 스마트폰의 강박적인 사용에 영향이 없다는 이경남, 김희화[45, 46]의 연구에서는 외로움은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어 외로움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비 일관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 수준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SNS중독경향성, 스마트폰 게임중독 간 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와 게임의 사용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외로움은 남녀청소년의 SNS중독 경향성 및 스마트폰 게임중독성향에 대해 매우 강조되는 요인이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외로움이 SNS중독경향성이나 스마트폰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각각의 연구가 상당수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단일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 또는 외로움이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외로움이 중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져 있으나 외로움과 중독 간의 단순한 관계를 살펴보았을 뿐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독간의 관계에 대한 외로움의 영향과 같은 조절효과는 연구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적 요인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개인 내적 변인인 외로움이 남녀중학생의 SNS중독경향성 및 스마

트폰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스마트폰의 SNS중독, 스마트폰 게임과 관련하여 성차가 있음을 보이고 있는데, 주로 성차와 관련하여 여성은 남성보다 모바일 사용에 뒤떨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모바일에 대한 친숙도 및 이용능력이 뒤처지기 때문이라고 한다[47]. 또 [48]에 의하면 남자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보유를 독립성 및 경제적 능력으로 의미화 하는 반면, 여성들은 자기표현과 사회적 도구로 삼는 경향을 확인하였다[49,50] 이에 성차에 따라 중독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51]의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이 남녀 모두에게 SNS중독경향과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남성의 경우만 외로울수록 SNS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일상에 지장을 받는 중독성향을 보이며, [52]의 연구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SNS 이용량이 많다고 주장된다. 반대로 [53]의 연구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경우가 SNS중독경향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외로움과 관련하여서도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이로써 게임중독 성향을 더 높게 만든다고 하였다[54]. 추가로 남아가 여아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는 연구결과[55,56]와 여아가 남아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는 연구결과[57]로 미루어 보아 성차에 대한 결과가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SNS중독경향성 및 스마트폰 게임중독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남녀중학생 각각에서 관계를 밝히고 이러한 관계가 외로움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SNS중독경향성, 스마트폰 게임중독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녀 중학생의 SNS중독경향성과의 관계가 외로움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
3.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녀 중학생의 스마트폰 게임중독간의 관계가 외로움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

2.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A 지역 소재에 재학 중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 된 설문지는 총 300부

로, 이 중 한 가지 이상의 척도에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41부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25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총 259명 중 남학생 134명(51.5%), 여학생 125(48.3%)명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중학교 1학년이 24.3%, 2학년이 27.4%, 3학년이 48.3%로 3학년의 비율이 비교적 많으며, 1학년과 2학년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2.2 측정도구

2.2.1 부모의 심리적 통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Barber[24]가 개발한 심리적 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 PCS-YSR)를 전숙영[2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3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로 구성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심리적 통제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6점에서 64점이다. 전숙영[24]이 모의 심리적 통제만을 사용한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83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아버지의 Cronbach's α 은 .97, 어머니가 .84로 나타났다. 부모 전체 Cronbach's α 값은 .95로 나타났다.

2.2.2 SNS중독경향성

SNS중독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조성현, 서경현[52]이 개발한 'SNS중독경향성'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오윤경[38]이 개발한 11문항 척도에 9문항을 더한 것으로 개발 당시 요인분석 결과 '집착 및 금단증상', '과잉소통과 몰입', '과도한 시간투자' 등 3개의 하위요인을 도출해냈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대체로 그렇지 않다, 3=대체로 그렇다, 4=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조성현과 서경현[58]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94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값은 .95로 나타났다.

2.2.3 스마트폰 게임중독

스마트폰 게임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김동일 외[59]가 개발한 표준화된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S-척도) 중 청소년용 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 내용에서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졌다”의 문항을 “스마트폰 게임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졌다”로 수정하였다. 본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게임중독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5점에서 60점이다. S-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89였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값은 .84로 나타났다.

2.2.4 외로움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해 Russell 등[60]이 제작한 '개정된 UCLA 외로움 척도(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RULS)'를 김옥수[33]가 번안한 한국판 UCLA 외로움 척도(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20점에서 80점이다. 김옥수[3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93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값은 .95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Statistic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사용된 척도들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고, 각 변인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남녀중학생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SNS중독경향성 및 스마트폰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외로움이 조절해 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을 알아보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가 0.1 이상,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이하인 경우가 있는지 검토한 결과 모든 변인 공차한계가 0.1이었고, VIF가 10이하로 도출되었다. 또한 Durbin-Watson 값이 2.16으로 나타남으로서 회귀모형이 정상분포 곡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상호작용 변인을 포함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 하였으며, 평균을 중심으로 \pm 표준편차 지점의 준거변인 값을 추정하

여 도식화하고 이를 결론 Fig. 1 에 제시하였다.



Fig. 1. The Moderating Effect of Loneli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and Smartphone Game Addiction of Male Middle School Students

3. 결론

3.1 주요 변인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 SNS중독경향성, 스마트폰 게임중독, 외로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를 아래 표 1에 제시하였다.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외로움과 SNS중독경향성($r=.19, p<.05$) 간에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외로움과 SNS중독경향성($r=.07, n.s.$)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심리적 통제와 스마트폰 게임중독($r=.12, n.s.$)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학생의 경우 심리적 통제와 스마트폰 게임중독($r=.19, p<.05$) 간에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정리해보자면, 정리해보자면, 심리

Table 1. Means, Standard Deviation, and Bivariate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259)

Variables	1	2	3	4
1	-	.29**	.19*	.32**
2	.32**	-	.22*	.07
3	.12	.31**	-	.22*
4	.25**	.19*	.35**	-
M	1.79	1.59	1.78	1.44
SD	.47	.59	.49	.49

* $p < .05$, ** $p < .01$

Note. Diagonal left bottom male, right upper female

1.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2. SNS addiction tendency

3. Smartphone game addiction

4. Loneliness

적 통제와 스마트폰 게임중독과의 관계에서 여학생의 경우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남학생의 경우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외로움과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남학생의 경우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여학생의 경우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평균과 표준편차의 경우 외로움의 평균은 1.79, 표준편차가 .47이었으며, SNS중독 경향성은 평균이 1.59 표준편차는 .47이었으며, 스마트폰 게임중독의 평균은 1.78, 표준편차가 .49였고, 심리적 통제의 평균은 1.44, 표준편차는 .49인 것으로 나타났다.

3.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외로움의 조절효과

3.2.1 남자중학생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외로움의 조절효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남자중학생의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외로움이 조절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에 심리적 통제와 외로움을 투입한 후, 2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인 심리적 통제 × 외로움을 투입하였다. 1단계에서 심리적 통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250, p<.01$), 외로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124, n.s.$). 이는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SNS중독경향성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2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은 SNS중독경향성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청소년의 경우 외로움의 수준에 따라 심리적 통제와 SNS중독경향성간의 관계는 유의하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Table 2. The Moderating Effect of Loneli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and SNS Addiction Tendency of Male Middle School Students (N=134)

D.V	I.V	1step(β)	2step(β)
SNS addiction tendency	Psychological control(A)	.291**	.312
	Loneliness(B)	.113	.127
	A*B		-.072
	R^2	.114	.118
	ΔR^2	.114	.004
	F	8.413***	5.814

* $p < .05$, ** $p < .01$, *** $p < .001$

3.2.2 여자중학생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SNS중독 경향성의 관계에서 외로움의 조절효과

부모의 심리적통제가 여자중학생의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외로움이 조절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에 심리적 통제와 외로움을 투입한 후, 2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인 심리적 통제 × 외로움을 투입하였다. 1단계에서 심리적 통제($B=.573, p<.01$)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로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0.35, n.s.$). 이는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SNS중독경향성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2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은 SNS중독경향성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청소년의 경우 외로움의 수준에 따라 심리적 통제와 SNS중독 경향성간의 관계는 유의하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Table 3. The Moderating Effect of Loneli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and SNS Addiction Tendency of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N=125)

D.V	I.V	1step(β)	2step(β)
SNS addiction tendency	Psychological control(A)	.303**	.269**
	Loneliness(B)	-.028	-.060
	A*B		.119
	R^2	.087	.099
	ΔR^2	.087	.011
	F	5.832**	4.409

* $p < .05$, ** $p < .01$, *** $p < .001$

3.3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스마트폰 게임중독의 관계에서 외로움의 조절효과

3.3.1 남자중학생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스마트폰 게임중독의 관계에서 외로움의 조절효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남자중학생의 스마트폰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외로움이 조절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에 심리적 통제와 외로움을 투입한 후, 2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인 심리적 통제 × 외로움을 투입하였다. 1단계에서 심리적 통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027, n.s.$), 외로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360, p<.001$). 이는 외로움을 많이 느낄수록 스마트폰 게임중독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2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B=-.228, p<.01$), 스마트폰 게임중독에 대한 설명력이 5.1%증가하여 17.6%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청소년의 경우 외로움의 수준에 따라 심리적 통제와 스마트폰 게임중독간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4. The Moderating Effect of Loneli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and Smartphone Game Addiction of Male Middle School Students (N=134)

D.V	IV	1step(β)	2step(β)
Smart phone game addiction	Psychological control(A)	.033	.102
	Loneliness(B)	.345***	.391***
	A*B		-.243**
	R^2	.126	.176
	ΔR^2	.126	.051
	F	9.410***	9.279***

* $p < .05$, ** $p < .01$, *** $p < .001$

3.3.2 여자중학생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스마트폰 게임중독 관계에서 외로움의 조절효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여자중학생의 스마트폰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외로움이 조절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에 심리적 통제와 외로움을 투입한 후, 2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인 심리적 통제 \times 외로움을 투입하였다. 1단계에서 심리적 통제($B=.193, n.s$)와 외로움($B=.178, n.s$)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은 스마트폰 게임중독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청소년의 경우 외로움의 수준에 따라 심리적 통제와 스마트폰 게임중독간의 관계는 유의하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Table 5. The Moderating Effect of Loneli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and Smartphone Game Addition of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N=125)

D.V	IV	1step(β)	2step(β)
Smart phone game addiction	Psychological control(A)	.129	.168
	Loneliness(B)	.183	.220
	A*B		-.137
	R^2	.065	.080
	ΔR^2	.065	.015
	F	4.235*	3.498

* $p < .05$, ** $p < .01$, *** $p < .001$

4. 논의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SNS중독경향성 및 스마트폰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남녀중학생 각각 외로움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SNS중독경향성 및 스마트폰 게임중독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자 134명, 여자 125명 총 259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주요 변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SNS중독경향성 및 스마트폰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외로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로움, SNS중독경향성, 스마트폰 게임중독, 부모 심리적 통제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남녀중학생을 구분하여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외로움과 SNS중독경향성, 스마트폰 게임중독 모두에게서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게임중독과는 상관을 보이나 SNS중독경향성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SNS의 이용량이 더 많다고 주장한 홍수정[52]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만,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SNS중독 경향성을 보인다고 보고한 임민희[53]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다. 이는 외로움이라는 개인내적변인에 대해 남녀 성차에 따라 다른 대처양식을 보이기 때문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특히 스트레스 대처 방식으로 친구와 함께하는 사회적 지지추구[61]를 더 많이 원하기 때문에 가상 속 대인관계에서의 만족을 덜 느끼는 것과 관련 있을 수 있다. 또한 이용 동기에 따라서도 성차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데, SNS의 이용 동기에 있어 남학생의 경우 대인관계 동기로 사용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정보획득의 목적으로 SNS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62]. 따라서 외로움과 SNS중독경향성의 상관관계에서 성별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심리적 통제와 스마트폰 게임중독간의 상관에서도 성차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여학생의 경우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더 많이 느낄수록 스마트폰 게임중독에 더 빠지지만, 남학생의 경우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스마트폰 게임중독간의 상관이 없었다. 이는 남녀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다르게 지각하는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더욱 지각한다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데 어머니와 딸은 아버지 보다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머니

의 양육행동을 더욱 민감하게 지각한다는 결과가 뒷받침해준다[63]. 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심리적 통제를 더욱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64]와 일치한다.

둘째, 외로움의 수준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녀 중학생의 SNS중독경향성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한 결과, 남녀 중학생의 모두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SNS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외로움이 조절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외로움은 상호작용하여 SNS중독경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외로움의 수준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녀 청소년의 스마트폰 게임중독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한 결과, 남자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스마트폰 게임중독과의 관계에서 외로움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자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스마트폰 게임중독과의 관계에서 외로움이 조절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상호작용 효과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외로움을 상, 하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스마트폰 게임중독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회귀선을 구하여 외로움의 수준을 살펴본 결과, 외로움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만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로움이 스마트폰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인임은 맞지만 외로움의 수준이 낮은 남자 청소년들은 부모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하는 경우, 통제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자 현실의 주변 친구들과 가상에서도 만나 오락을 즐기며 더욱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스마트폰 게임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대한 의의 및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외로움과 SNS중독경향성과의 관계,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스마트폰 게임중독 간에 관계가 다르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여자중학생의 경우 사회적 지지추구 가설에 따라 온라인 관계보다 오프라인을 관계를 더욱 원하기 때문에 SNS중독경향성과의 외로움이 상관이 없었다. 이와는 다르게 남자중학생들은 외로움이 SNS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가정하고, 상담 장면에서 남자중학생의 외로움에 주의를 기울이고, 외로움을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 여자중학생들은 남자중학생에 비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더 많이 지각하며 통제를 더욱 많이 지각할수록 스마트폰 게임 중독 성향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독의 주

요 기제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초점을 두고 부모교육이나 부모상담 장면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가지는 중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외로움의 수준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스마트폰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성차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여, 성별에 따라 스마트폰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밝혔다. 즉, 외로움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남자중학생들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지각할수록 스마트폰 게임에 더 많이 중독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부모와의 관계보다 또래와의 관계가 중요해지는 청소년기의 발달특징상 또래와의 깊은 관계로 외로움이 상대적으로 적은 남자중학생들은 부모가 심리적으로 통제를 많이 할 경우, 가상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컴퓨터 게임보다는 현실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마트폰 게임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앞선 결과와 같이 종합해보면 외로움 자체는 남자중학생의 SNS중독경향성, 스마트폰 게임중독에, 여자중학생의 게임중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외로움이 적은 남자청소년이라고 해도, 부모가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게임중독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상담 및 교육 장면에서 성별에 따라 스마트폰 게임중독에 미치는 요인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스마트폰 게임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 및 교육장면에서 성별에 따라 스마트폰 게임중독 성향을 보임에 차이가 있음을 가정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남자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련하여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A 소재 중학교의 남녀 학생 259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표본의 대표성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전체 중학생의 결과로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추후 더 많은 표본과 다양한 지역에서의 반복적 연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표본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SNS중독경향성과 스마트폰 게임중독의 평균점수가 낮았으며, 이로 인해 본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중독경향이 뚜렷한 대상으로 표집 하여 추가 연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스마트폰 게임중독 척도 사용에 있어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S-척도)를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정확한 스마트폰 게임중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

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스마트폰 중독을 측정하는 척도는 많으나 스마트폰 게임중독을 측정하는 도구는 없는 실정이다. 추후 스마트폰 게임중독의 공인된 진단척도가 개발 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스마트폰 게임중독을 측정하여 중독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재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H. K. Beak, J. W. Yoon, "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adolescent's smartphone addiction and psychological mindednes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7, pp.389-400, 2014.
- [2] K. W. Shin, D. I. Kim, H. S. Kim, Y. J. Jung, "A Study on Strategies for Intervention and Resolution of Smart Media Addiction",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3] B. Y. Kim, "Mobile Phone and Internet Game Addiction, and Stress Responses of High School Student: The Mediating Effect of Sleep Deprivation",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17, No.2, pp.385-398, 2012.
- [4] Survey on smartphone dependency: Youth (10 ~ 19 years old) Internet dependence scal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rea.
- [5]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2 Internet addiction survey" Seoul: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3.
- [6] Christensen, M. H., Orzack, M. H., Babington, L. M. & Pastsdaughter, C. A, "Computer addiction: When monitor becomes control center.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 Vol.39, No3, pp.40-49, 2001.
- [7] H. I. Jo, "The Effec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nd Internet Use Motives on Internet Addiction: Self-Control as a Mediator", *Jon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13, No.4, pp.269-287, 2011.
- [8] Kuss, D. J, "Internet gaming addiction: current perspectives", *Psychology research and behavior management* , Vol.6, No.125, 2013.
DOI: <https://doi.org/10.2147/PRBM.S39476>
- [9] Kuss, D, Griffiths, M, "Social networking sites and addition: Ten lessons learned.",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14,No.3, pp.311-327, 2017.
DOI: <https://doi.org/10.3390/ijerph14030311>
- [10] S. Y. Jung, J. N. Kim,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NS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19, No.1, pp.147-166, 2014.
- [11] H. M. K, *The effect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on the youth's SNS addiction : The Mediating Effect of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Social anxiety*,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tiy, 2016.
- [12] H. Y. Jang, *Relation of internet game addiction with teenagers' sociality and urge*,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2004.
- [13] J. E. L, *Analysis of SNG(Social Network Game) users' flow experience depending on individual characteristic and social influence factors*, Master's thesis, Chounang University, 2012.
- [14] Suler, J. R. "Psychotherapy in Cyberspace: A 5-Diensional Model of Online and Computer-Mediated Psychotherapy", *CyberPsychology & Behavior*, Vol.3,No.2, pp.151-159, 2000.
DOI:<https://doi.org/10.1089/109493100315996>
- [15] J. S. Lee, S. H. Mo, "The Effect of democratic school management on youth's social development : The mediation of democratic school rule and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9, No.9, pp.281-308, 2012.
- [16] S. J. Roh,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Environmental and Personal-Psychological Factors, Smartphone Usage Motivation Affecting High-School Student's Smartphone Addiction", *Korea Association of Educational Information & Media*, Vol.19, No.4, pp.659-691, 2013.
- [17] E. J. Lee, J. K. Eo, "The Effects of Perceived Stress and Impulsivity of High School Students as well as the Parents' Parenting Attitude on Smartphone Addiction", *Family and Family Therapy*, Vol.23, No.1, pp.1-22, 2015.
- [18] S. H. Lee, *The effect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adolescent's relational aggression : the mediating role of adolescent's attachment to the same*,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17.
- [19] H. H. Kim, "The Effect of Maternal Monitor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on Problem Behavior and Internet Delinquency in Adolesc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0, No.3, pp.133-153, 2003.
- [20] Y. J. Jung, "Children's Personal Characteristics,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the Extent of Children's Computer Game Playing", *Korean Home Economic Association*, Vol.43, No.11, pp.197-210, 2005.
- [21] S. J. Han, *Impact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on The Youth's Smart Phone Addiction: The Mediating Effect of Cognitive-Emotional-Control Strategies*,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2015.
- [22] Y. M. Yoon, "Youth Internet Use: Developing an Analytical Model", *Information Society & Media*, Vol.12 No.2, pp.133-153, 2000.
- [23] Y. S. Na, "The Effects of the Parents' Child-rearing

- Attitude on the Smartphone Addiction of Small Children”, *The Korea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17, No.3, pp.31-53, 2013.
- [24] Barber, B. K.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Vol.67, pp.3296-3319, 1996.
DOI: <http://dx.doi.org/10.2307/1131780>
- [25] Barber, B. K, Harmon, E. L.,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p. 15-52, 2002.
DOI: <https://doi.org/10.1037/10422-002>
- [26] S. Y. Jeon,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Mediation effects of Emotional Autonom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45, No.6, pp.101-111, 2007.
- [27] Aunola, K., Nurmi, J., E., “The role of parenting style in children’s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Vol.76, No.6, pp.1144-1159, 2005.
DOI: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5.00840.x-i1>
- [28] H. J. Shin, *The Influence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Peer Conformity and Self-Regulation Ability on the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of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Chungbuk University, 2018.
- [29] H. H. Jung, *The influence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erceived by adolescents on smartphone addiction mediating effect of self-deterministic motivation*, Master’s thesis, Shilla University, 2017.
- [30] H. M. Kwon, *The effect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on the youth’s SNS addiction : The Mediating Effect of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Social anxiety*,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2016.
- [31] H. J. Ryu,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control and Risk of Internet Game Addiction*,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1.
- [32] Heinrich, L. M, Gullone, E., “The clinical significance of loneliness: A literature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26, No.6, pp.695-718, 2006.
DOI: <https://doi.org/10.1016/j.cpr.2006.04.002>
- [33] O. S. Kim, “Loneliness : Concept Analysis”, *Health & Nursing*, Vol.9, No.2, pp.28-37, 1997.
- [34] Weiss, R. S., *Loneliness : The experience of emotional and social isolation*. Cambridge, MA: MIT Press, 1973.
DOI: <https://doi.org/10.4236/ajac.2013.49062>
- [35] Griffiths, M., Internet addiction. *The Psychologist*, Vol.2, No.5, pp. 245-250, 1999.
- [36] Young, K. S.,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 behavior*, Vol.1, No.3, pp.237-244, 1998.
DOI: <https://doi.org/10.1089/cpb.1998.1.237>
- [37] M. J. Lee, H. S. Jang. “The Affects of Social Anxiety, Loneliness, and alienation on College Students Mobile Phone Addic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6, No.11, pp.71-96, 2009.
- [38] Y. K. Oh,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NS Addiction tendency on Loneliness, Depress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ocial Support*, Master’s thesis, Korea counseling university, 2012.
- [39] W. J. Seo, M. R. Kim, J. H. Kim, E. Chad, I. S. Jo,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social media addiction”,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20, No.4, pp.497-512, 2015.
- [40] W. K. Park, “An explorative study on Adolescents’ SNS addic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Vol.13, No.4, pp.305-342, 2013.
- [41] J. Y. Yeong, S. Y. Kang, D. H. Kim, “The Impact of Attachment Anxiety on Smart Phone Addiction with a Mediating Effect of Impulsivity and Loneliness: Focused on the Group of SNS and GAME”,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22, No.1, pp.47-69, 2014.
- [42] S. Y. Park, K. W.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Oiettolie Traits and Their Risks of Gaming Addic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0, No.3, pp.839-861, 2008.
- [43] J. H. Seo, H. K. Lee, “The Relation Between Game Flow and Game Addiction: Moderating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9, No.11, pp.23-44, 2012.
- [44] H. C. Lee, C. Y. Ahn,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Internet Game Addiction”,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7, No.3, pp.463-486, 2002.
- [45] Park, B. W, Lee, K. G, A Pilot to analysis the effects of User Experience and Device Characteristics on the Customer Satisfaction of Smartphone Users. *Communications in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 Vol.151, pp.421-427, 2011.
- [46] K. N. Lee, H., H. Kim, “The Relationship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Loneliness and Interpersonal Problems on Adolescents’ Smartphone Addiction”,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Vol.17, No.3, pp. 27-36, 2019.
- [47] Leung, L., Wei, R. “Who are the mobile phone have-nots? Influences and consequences.” *New Media & Society*, Vol.1, No.2, pp.209-226, 1999.
DOI: <https://doi.org/10.1177/1461444899001002003>
- [48] Ling, R. “The mobile connection: The cell phone’s impact on society.” Elsevier, 2004.
- [49] Y. H. Kwak, *A Correlation Between Motives For Using Moblie SNS and Use Behavoirs-Focusing on Twetter Users-*,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2011.

- [50] D. H. Lee, S. H. Son, "Is there a Gender Difference in mobile Phone Usage?",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20(1), pp.249-284, 2006.
- [51] J. H. Lee, H. Y. Kim, J. S. Kang, "The Effect of Loneliness on SNS Addiction: Moder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 Orientation and Its Gender Differenc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36, No.2, pp.154-164, 2017.
- [52] H. S. Jung, *A Study on the effect of SNS Users' Use Motivations and Network Type on the Online Civic Participation*,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 and Journalism Sunkyunkwan University, 2014.
- [53] M. H. Im, *Gender Differences on The Effects of SNS Use Motivation and Perceived Interactivity and Social Anxiety in the SNS Addiction Proneness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2015.
- [54] H. J. Bang, A. M. Cho,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 and Adolescents' Internet Game-related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Vol.16, No.1, pp.1-22, 2003.
- [55] M. J. Woo, I. J. Park, "Child Bonding Type in Early Stages, Family Functioning, and Children's Loneliness =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Perceived Parent", *The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Welfare*, Vol.6, No.2, pp.25-43, 2001.
- [56] J. H.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a child's loneliness and self-esteem, peer competence, his/her mother's rearing attitude*, Ph.D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2011.
- [57] H. M. Oh, *Relation between Children's Loneliness and the Qualities of Sibling Relationships and Friendship*,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2000.
- [58] S. H. Cho, K. H. Suh, "An Exploratory Study on Factors Related with SNS Addiction Proneness: Focus on Covert Narcissism,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and Sense of Alienation",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18, No.1, pp.239-250, 2013.
- [59] D. I. Kim, Y. J. Chung, Y. H. Lee, B. K. Kim, H. J. Jeo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Youth Smartphone Addiction Self-report Scal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7, No.3, pp.319-335, 2016.
- [60] Russell, D, Peplau, L, A, Cutrona, C. E,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te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39, pp.472-280, 1980.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39.3.472>
- [61] Plancherel, B, Bolognini, M, "Coping and mental health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Vol.18, No.4, pp.459-474, 1995.
DOI: <https://doi.org/10.1006/jado.1995.1033>
- [62] E. J. Jung, W. H. Kim, D. H. Lee,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Motives for Using SNSs among Korean High School Students", *Education Innovation Research*, Vol.24, No.1, pp.17-31, 2014.
- [63] Kaufman, G, Uhlenberg, P, "Effect of life course transitions on the quality of relationship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60, No.4, pp.924-938, 1998.
DOI: <https://doi.org/10.2307/353635>
- [64] H. Y. No, *The Effect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Chronic Procrastina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2017.

고 민 정(Min-Jung Ko)

[정회원]



- 2019년 2월 :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 전공(석사)

<관심분야>

청소년상담, 부모양육태도

하 정 희(Jung-Hee Ha)

[정회원]



- 2006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상담심리전공)
- 2009년 8월 ~ 2016년 8월 : 한양사이버대학교 청소년상담학과 교수
- 2016년 9월 ~ 현재 :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청소년상담, 완벽주의, 청소년의적응, 애도 및 상실, 다문화상담